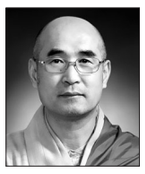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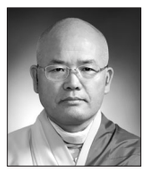
천태종 총무원 및 주지 인사 단행

총무부장 월장 · 재무부장 월중 스님


월장 스님


월중 스님


도웅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이 새 집행부 인선에 발맞춰 총무원과 일부 사찰 주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은 4월 18일자로 총무원 총무부장에 월장 스님(제16대 전형위원회 위원 겸직), 재무부장에 월중 스님, 사회부장에 도웅 스님(상벌위원회 위원 겸직), 규정부장에 갈수 스님(상벌위원회 위원 겸직)을 임명했다. 교무부장 경혜 스님과 교육부장 장호 스님은 유임. 이밖에도 교무부 기도실 담당 도각 스님, 종정 사서실 과장 견문 스님, 총무부 총무국 과장 묘언 스님, 종정 사서실 서기 연담 스님, 교무부 교무국 서기 선벽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다.

말사 주지 및 학교법인 인사도 단행됐다. 서울 삼룡사 주지는 前총무원장 춘광 스님, 부산 광명사 주지는 개문 스님,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사무처장은 장호 스님(금강대 국제선원장 겸직), 서울 관문사 주지는 월장 스님, 창원 원흥사 주지는 갈지 스님이 맡았다. 학교법인 사무처 국장은 구화 스님이다.

김주일 기자

대전불교총연합회장에 무원 스님



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사진〉이 새로 창립된 대전불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무원 스님은 4월 15일 광수사에서 열린 '대전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와 함께 상임대표에 대연 스님(송림사 주지) · 석준 스님(여경암 주지) · 원명 정사(진각종 교구청장), 사무총장에 설문 스님, 재무총장에 승원 정사(총지종 만보사 주교)가 선임됐다.

한편 대전불교총연합회는 대전불교 출가자와 재가자가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다. 대승보살도 수행으로 육바라밀, 자비희사, 동체대비를 펼쳐 불국정토 실현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호섭 기자

양흥식 디지털대학 처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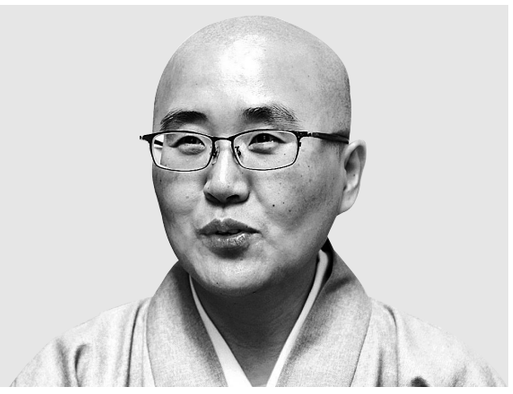
조계종 신임 디지털대학 교학처장에 양흥식 前업무국장〈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양 신임 교학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양 교학처장은 1992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불교TV에 재직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금강신문 미디어팀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3월부터 조계종 디지털대학 업무국장을 맡아 디지털대학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노덕현 기자

"영어와 명상으로 어린이 포교를"

Interview

영어동작명상 강좌 여는 자우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2일부터 매주 토 개최

뉴욕대 이선옥 박사가 진행

"명상 · 진로상담, 포교 성공적"

불교 안팎으로 명상열풍이 불며 불교 명상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영어와 명상을 활용한 새로운 포교를 진행하는 사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화제의 대상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이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선원장 자우)은 5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경내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어로 배우는 동작명상 강좌'를 연다. 강사로는 미국 뉴욕대에서 무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선무용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 온 이선옥 박사가 참여한다. 이번 동작명상 강좌는 평소 영어를 활용한 어린이 포교를 해온 선원장 자우 스님의 관심이 있어 이뤄질 수 있었다.

자우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 도량으로 지난 10여 년간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 현대사회의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학업 압박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소통과 보살핌의 부재, 집중력 결핍 등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심리적 · 신체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보니 선무 창안자인 이선옥 박사와 함께 '영어로 배우는 동작명상'을 진행하게 됐다. 영어로 명상을 실제적으로 배우며 자연스럽게 영어실력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명상을 지도하는 이선옥 박사는 해외포교 선구자였던 숭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선정에 다가갈 수 있는 선무를 창안했다.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파리 르 몽 포엥 극장에서 '선무가 바라밀다' 공연을 시작으로 100회 이상 활발한 공연을 펼쳤다. 뉴욕대 무용교육과 겸임부교수, 원광대 예술치료학과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강좌에서 소개될 동작명상은 이 선무에 기반을 두고 부처님 수인(手印), 음악과 춤, 몸의 움직임과 단전 등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시킴으로써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명상법이다.

자우 스님은 "어린이들의 경우 집중력 부족으로 일반적인 명상을 오랜 시간 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다양한 동작 속에서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작명상이 맞춤형 명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미국 현지에서 선을 알려온 이 교수가 진로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우 스님은 이어 "영어 암송대회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력과 별개로 그 경험이 상당한 자신감으로 자리해 향후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의 경우도 영어로 불교수행을 하는 것에 높은 호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불교계가 영어를 통한 어린이 포교에 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포교 전망을 밝혔다.

한편,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성인 교실 또한 동시 개강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작 명상은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다. (02)6012-1731

"전법 · 봉사하는 동문회 만들겠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회장 법경 스님 취임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제13대 회장에 법경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4월 17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제12 · 13대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동림동문회 전임회장 혜정 스님,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조계종 前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최승천 조계종출판사 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림동문회 제13대 회장 법경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법경 스님은 "청소년 포교를 시행해 동문회가 적극적인 전법활동에 나설 것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일반 재가자 장학 후원을 추진하고 함께 경전 공부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실 있고 알찬 총동림동문회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많은 회원 스님들이 함께 일심 정진해 화합의 동문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12대 회장 혜정 스님(사진 왼쪽)이 13대 회장 법경 스님에게 회장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동국대는 불교를 대표하는 종립사학으로 수많은 불교인재를 배출했다"면서 "동국대의 불교인재인 동림동문회 회원들도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총동림동문회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무료급식봉사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 학업에 어려움 없길"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증서 수여식



(사)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4월 13일 서울 길상사에서 제25회 '맑고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35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예산은 9000만원. 학비는 분기별로 학교계좌로 송금하며,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는 운영회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윤호섭 기자

적조사, 지역사회 자비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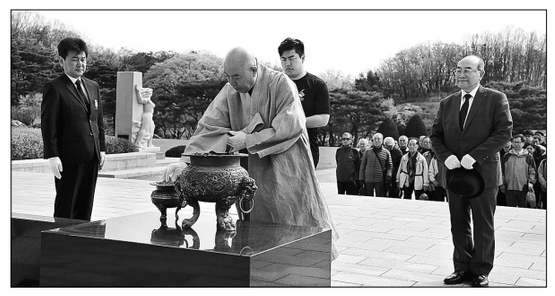
봉축 앞서 라면 · 쌀 등 물품 전달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적조사(주지 탄국)는 부처님오신 날과 가정의달 5월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물품 전달식을 4월 13일 개최했다. 적조사는 라면 200박스, 초코파이 250박스, 쌀 70포대(10kg), 음료수 1200개 등을 포교단체와 대안학교, 어린이공부방 등에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4 · 19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학생 · 교직원 등 2,000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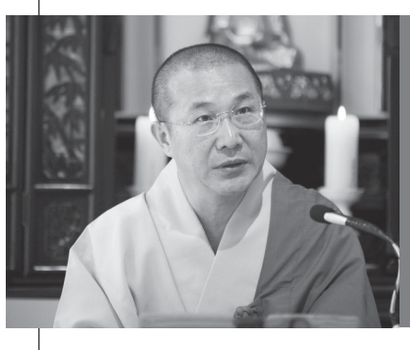


동국대(총장 보광)는 '4 · 19혁명 제58주년'을 기념해 4월 13일 북한산에서 '제49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등산대회에는 교직원 및 학생, 동문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 4 · 19민주묘지 내 기념탑에서 추모식을 갖고, 동국대 재학 중 4 · 19혁명으로 희생된 16명에게 헌화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와 단체별로 교수 및 학생들이 북한산 대동문까지 함께 걸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제 6기 개강

원순스님의 〈능엄경楞嚴經〉

경전어록 전문 강설 도량인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오는 5월 14일 〈능엄경〉 강설을 위한 법회를 1년 과정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능엄경〉은 그 내용이 방대하며 다른 경전에 비해 난해하다는 인식으로 재가 불자들을 위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5월 개강을 시작으로 가을 학기에 이어서까지 능엄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경전 어록에 관심 있는 분들과 특히 능엄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상임지도 법사 | 원순스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개강일시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묘광선원 -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수 강 료 월 5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051.244.0263 / 010.3564.3725 / www.open-buddhism.com

※ 주차는 건너편 성원주차빌딩에 유료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